

# 5·18주제 영화 광주극장서 선보인다

### 안성기·박근형 주연 '아들의 이름으로' 13일 개봉 '좋은 빛, 좋은 공기' 임흥순 감독 22일 관객과 대화

광주극장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영화 '좋은 빛, 좋은 공기', '아들의 이름으로' 등 5·18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선보인다. 이와함께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슈퍼노바', 현대 미술의 거장 쿠사마 야요이의 삶을 그린 '쿠사마 야요이 무한의 세계'를 비롯해 '쿠오바디스, 아이다', '더 파더' 등도 개봉한다.



임흥순 감독



신형철 평론가

최초의 장편 극 영화 '부활의 노래' (1990)로 데뷔한 이정국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았다. 이 감독은 다시금 5월의 광주를 그려내며 '진정한 반성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진다.

'슈퍼노바'도 13일부터 만날 수 있다. 기억을 잃어가는 '터스카'와 마지막 여행을 떠난 '샘'의 가장 찬란하게 타오르는 시간을 기록한 드라마로, '킹스피치'로 제83회 아카데미시상식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폴린 퍼스와 '컨스피러시'로 제59회 골든 글로브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스탠리 투치의 독보적인 감정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19일 개봉하는 '쿠사마 야요이 무한의 세계'는 '호박', '무한 겨울의 방' 등의 작품으로 전세계에서 사랑받는 여성 아티스트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세계를 그린다. 이와 함께 그의 어린 시절과 정신병을 앓은 병력, 작가로서 발돋움하게 되는 과정도 담았으며, 어린 시절 그림을 그리던 중 어머니에게 그림을 뺏겨 생긴 강박, 뉴욕 미술계에서 동양인 여성 작가로 명성을 떨치기까지 받았던 차별과 편견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비하인드 스토리도 만날 수 있다.

'쿠오바디스, 아이다'는 20일 개봉한다. 베를린 국제영화제 황금곰상을 수상한 바 있는 아스플라즈비치 감독의 신작으로 1995년 세르비아군이 보스니아를 공격하자 UN군 통역관으로 일하던 여성 아이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드라마다.

제93회 아카데미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안소닌 홉킨스)과 각색상을 수상한 '더 파더'의 시네토 크는 21일 오후 7시20분 영화 상영 후 열린다.

신형철 문화평론가의 사회로 진행되며, 동명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보다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선사한다.

'더 파더'는 완벽하다고 믿었던 일상을 보내던 노인 '안소니'의 기억에 혼란이 찾아오고, 완전했던 그의 세상을 의심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아들의 이름으로'



'좋은 빛 좋은 공기'

## '광주 근현대 예술가' 주제로 한 강좌 열려

### 광주문화재단 '광주학 콜로키움' 31일~9월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 근현대 예술가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강좌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봉년)이 진행하는 '2021 광주학 콜로키움'이 '근현대 광주 예술가들'이라는 주제의 강좌를 마련했다. 오는 31일부터 9월까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한 '광주학 콜로키움'은 광주의 기원 등에 대해 조망하는 토론의 장이다. 그동안 도시공간과 역사, 불교와 건축문화, 신창동 유물·유적지 등을 주제로 열렸다.

올해 첫 콜로키움은 오는 31일 오후 4시 '1980년 전후의 민중문화운동'이라는 주제로 전용호 소설가가 발제자로 나선다. 전 소설가는 광주 YMCA 탈춤강습회, 전남대 민속문화연구회 창립 등 광주 문화운동 태동과 아울러 강제 해체, 문화적 저항 현장을 더듬어 본다.

이후 강좌로는 '정근의 동요와 어린이 문화운동' (6월28일·정철훈 시인), '광주 판소리의 전통과 명창 박동실' (7월26일·신은주 전북대학교 교수), '광주 무용의 대모 박금자의 예술세계와 광주발레' (8월23일·박선희 광주로얄발레단 대표), '시인 김태오의 삶과 문학' (9월30일·이동순 조선대학교 교수) 등이 이어진다.

회차별 선착순 30명 전화로 접수, 중복신청도 가능하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오는 12월에는 '2020-2021 광주학 콜로키움' 10회 내용을 담은 결과물을 출간할 계획이다. 문의 062-670-749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아시아문화전당 통합조직 새롭게 출발하려면 전당장 직급 상향·위상 제고돼야

### 지원포럼·시민연대 제언문 발표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이 오는 9월 통합 조직으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당장 직급 상향과 위상이 제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기관 운영이라는 환경에 맞춰 최소한 고위 공무원 가급으로 직급을 상향해 위상과 책임성을 높여야 하는 지적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이하 지원포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2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별) 통과 후속조치 일환으로 지역사회 제언문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제언문은 최근 전일빌딩24에서 열린 '아특별 개정 이후 문화전당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이슈 포럼을 토대로 마련됐다.

지원포럼과 시민연대는 "문화전당은 지난 2015년 개관 이후 지금까지 수장 없이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아특별 개정안 국회통과 취지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당장 위상과 책임성 제고는 선결조건"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전당장은 지난 2015년 개관 이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다.

현재 편제는 전문임기제 가급이다. 향후 전당장 직급을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상향해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에게도 문화를 개방해 전당 서비스뿐 아니라 콘텐츠 생산과 질을 담보해야 한다는 견해다. 사실 개관 초기 전당

장 직급을 차급급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역 여론을 감안하면 향후 직급은 지금보다 상향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김기근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장도 "전당장의 직급은 향후 조직 규모 설정, 역할과 기능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당장 직급이 높을수록 직급은 다양하고 구성 인원 역시 많아진다"며 "전당장의 직급 상향과 신속한 채용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원포럼과 시민연대는 "문화전당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유무형 자산이 빠짐없이 승계돼야 한다"며 "아시아문화원 인력의 전원 고용 승계 및 근로조건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관광문화연구원(2009·2014년), 한국행정연구원(2012년) 연구용역, 한국기업지식연구원(2020년) 성과평가, 2015년 전당 개관을 앞두고 문제부가 제시한 규모가 최소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전당과 지역과의 협력과 연대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단순한 선연적 주장이 아닌 전담조직 설립 등 제도화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는 논리다.

지원포럼과 시민연대는 "현 조성사업 추진체계를 근거로 불가피하게 정부가 중심이 돼 후속조치를 진행하더라도 보다 개방적이고 열린 자세로 지역민과 소통, 협력을 통해서 추진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양육 콘텐츠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연재 시작

### 광주여성가족재단, '난임 칼럼' 등 양육 커뮤니티 활성화 기대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은 최근 다양한 양육 콘텐츠를 제작해 광주아이키움(www.광주아이키움.kr) 플랫폼에 연재를 시작했다.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은 광주시가 추진중인 '아이날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실현을 위해 임신·출산·양육부터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돌봄지원정책과 서비스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이트이다.

이번 양육 콘텐츠는 정책과 서비스 지원 내용을 단순히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벗어나 양육인들이 서로 소통하며 광주내 양육커뮤니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획·제작됐다.

각 주제별 전문가이며 양육을 경험한 당사자들이 직접 칼럼과 웹툰 작업을 집필·제작해 더욱 현실적이고 진솔한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난임칼럼'에는 직접 난임을 겪고 극복한 내용을 엮은 '슬기로운 난임생활'의 김여희 작가가 참여했으며, '자연주의양육법 칼럼'에는 한의사



정성씨가 참여해 천자연주의 방식의 양육방법을 고민하는 한의사 엄마의 고민과 양육 과정들을 담아냈다.

또 친환경·맞춤형이유식 업체 류명주 대표는 '영유아레시피'를 통해 이유식에 대한 양육인들의 고민을 한결 덜어 줄 전망이다.

이밖에 두 딸을 양육하며 경험하는 일상의 소소한 육아 이야기를 담은 '육아의 온도(사진)'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222-1279.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